

수술비 때문에 일반 병원
에서 입퇴원을 다섯차례나
하는등 심장질환인 승모판막
폐쇄부전증(僧帽瓣膜閉鎖不
全症)으로 사경을 헤매는 여
인을 군 병원의료팀의 성공
적인 수술로 생명을 구해준
미담이 있다.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치료
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군
수도통합병원은 군·민유대강
화와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
로 박옥희여인(53세)이 승모
판막폐쇄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소식을 듣고 수술을
해줄것을 결심하고 인공승모

死境의 이웃救한 국군의 仁術

국군통합병원, 僧帽瓣膜 閉鎖 不全症환자 살려

판막 대치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해하는데 앞장섰다.
제주도 북군 초천면 함덕
리가 고향인 박여인은 해녀
생활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

왔는데 약 3년전부터 가슴에
이상이 있어 제주도립병원에
서 진찰결과 심장판막이 나

쁘니 수술을 받을 것을 종종
받았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남보령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비를 마련치못한 박여
인 으로서는 일시적인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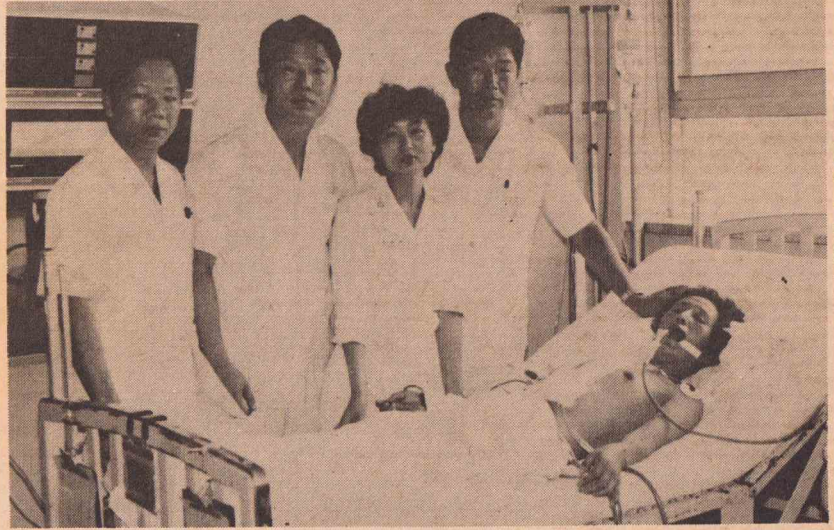
성공적수술로 貴重한生命 구해

美談

고 있는 측근들의 권유로 국
군수도통합병원을 찾자 병원
당국에서는 수술을 무료로 제
공해줄것을 결심하고 박여인
을 입원시켰다.

각종 검사를 실시한 국군수도
통합병원은 지난 7월20일 흉
곽외과 수술팀인 김영태중령,
최중립중령, 김용진소령, 임
승평대위, 신양식대위로 하
여금 수술을 집도, 사경을
헤매던 박여인을 완쾌시키는
데 성공했다.

군병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군수도통합병원 흉곽외과 수술팀에 의해 생명을 구한 박여인여인과 그의 가족들

딱한 처지의 박옥희女人... 무료로 수술

박여인은 수술은 엄두도 못내
고 심장약만 구입해 복용하
던중 약 6개월전인 금년 1
월 8일 병세가 악화되어 중

만 받으며 입퇴원을 다섯차
레나 하여야 하는 딱한 처지
였다.
박여인의 딱한 처지를 알

성의로 잃을뻔한 생명을 되
찾은 박여인은 군과 병원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기쁨
의 눈물을 흘렸다.

